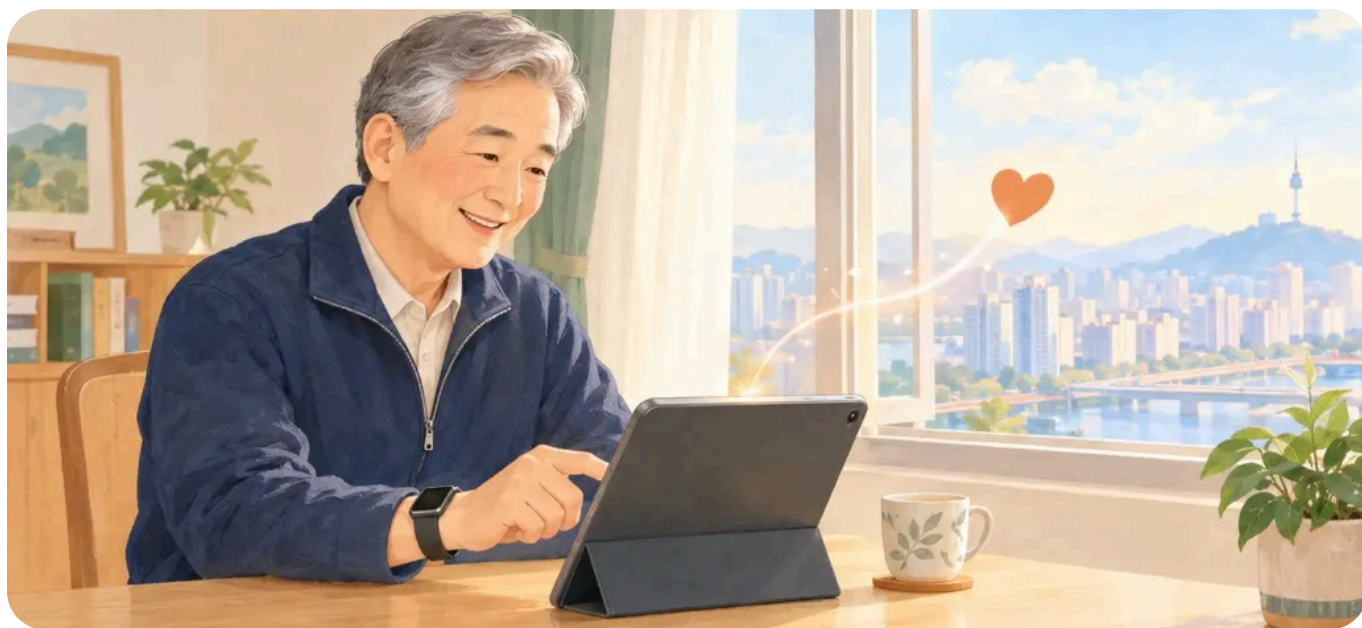


전화하지 않아도 "잘 지낸다"가 전해져요.

바쁜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기 망설여지시죠. 아침 인사 한 번, 약 한 번 누르시면
그게 곧 안부가 돼요. 짐이 되지 않고, 필요할 때는 바로 닿아요.



“바쁜 애들 귀찮게 하기
싫다”

따로 전화 안 하셔도 돼요

하루 소식이 자녀 앱에 조용히 쌓여요.

“감시받는 건 싫다”

카메라로 보지 않고, 대화는 내 것

도란이와 나눈 이야기는 자녀에게 보이지 않아요.

“아플 때 알릴 사람이
없으면”

[연락해 줘] 한 번이면 돼요

몸이 안 좋은 날은 [오늘은 좀 그래요]. 자녀 휴대폰이
바로 울려요.

“저녁이 길고 적적하다”

말 상대가 생겨요

옛날이야기도 듣고, 퀴즈도 내고, 어제 말씀도
기억해요.

자녀에게 가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

가는 것

아침 인사·약 드심·외출 여부. [연락해 줘]·[오늘은 좀 그래요]·[자녀에게 부탁하기]를 누르셨을 때.

안 가는 것

도란이와 나눈 이야기 내용. 카메라 영상 (영상통화 말고는 안 켜져요). 휴대폰 안의 내용.

휴대폰은 지금처럼 쓰세요. **휴대폰에 앱을 깔 필요 없어요.** 태블릿은 탁자 위에 두고 전원만 켜주시면 돼요. 외출하실 땐 [외출해요]를 누르세요.

찾아보지 않아도 알려 드려요

독감 예방주사

신분증 들고 가까운 내과·보건소로. 65세 이상 무료

건강검진·폐렴 예방주사

받으실 해, 무료 대상이시면

연금 들어오는 날·절기

시계 화면에 띄워 드려요

날씨·재난문자

할 일을 한 줄로 읽어 드려요

병원 가시는 날

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

[자녀에게 부탁하기]

"검진 같이 가 줘"도 버튼 하나로

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위급할 때는 119가 먼저예요. 넘어지신 걸 바로 알아채지는 못해요. 오래 조용하시면 여쭙고, 답이 없으면 자녀에게,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 운영 시간(오전 10시~오후 4시)에는 운영팀이 연락해요.

자녀에게 한 번 보여 주세요

"이런 게 있더라" 하고 보여 주시면 돼요. 자녀 휴대폰 카메라로 오른쪽 네모를 비추면 안내가 열려요.

caremate365.com/story

